



정치담론 상에서 코로나19 은유의 개념화 양상

권연진 (부산대학교)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June 15, 2022

Revised: August 10, 2022

Accepted: August 31, 2022

Yeon-Jin Kwon
Professor, Dept. of
Language and Information,
Pusan National Univ.
Tel: 051-510-2026
E-mail: yeonjin@pusan.ac.kr

ABSTRACT

Kwon, Yeon-Jin. 2022. The conceptualization of Covid-19 metaphor in political discourse.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2, 871-890.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ualization of Covid-19 related expressions in political discourse based on the conceptual metaphor theory from a cognitive linguistic point of view. In particular, we discuss why infectious diseases such as Covid-19 are metaphorically used, and analyze the conceptualization patterns and mapping of [COVID-19 IS A WAR] metaphors. First, in political discourse, the study discusses why war metaphor is used most frequently in terms of empirical, emotional, and structural aspects. In terms of experience, metaphor plays an important role in structuring our thoughts and concepts, and conventional metaphors are based on the embodied primary sensory motor experience. In terms of emotion, war metaphors are appropriate for immediate attention and delivery of the seriousness of the crisis, as they cause strong negative emotions such as fear and anxiety, even if there is no military confrontation. In terms of structure, war metaphors use basic schematic knowledge that can easily be thought of in different situations, such as battles between opposing forces or a series of battle events unfolding over time and space. Furthermore, we examine how the metaphor [COVID-19 IS A WAR], which appears most frequently in political discourse, is conceptualized and mapped for each component of the source domain of war and the target domain Covid-19. Finally, the implications of Covid-19 metaphor are discussed in terms of crisis communication, national integration and social community consciousness, compassion and empathy, and appeal of world peace.

KEYWORDS

cognitive linguistics, metaphor, conceptual metaphor theory, embodied experience, political discourse, covid-19

1. 서론

본 연구는 은유(metaphor)를 단순히 언어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사고나 개념의 차원으로 보고 우리의 사고 과정이 대부분 은유적이며, 하나의 경험 영역을 다른 경험 영역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사고하는 과정으로 간주하는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의 개념적 은유 이론(conceptual metaphor theory)을 바탕으로 정치담론(political discourse) 상에 나타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표현들의 개념화 양상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은유란 어떤 사물이나 대상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유사한 속성을 지닌 다른 사물이나 대상을 사용하는 기제로서 태도와 신념을 표현하고 복잡한 사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특히 은유적 표현은 그 문장을 사용한 화자의 의도가 청자에게 보다 잘 전달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득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정치인들은 국민이나 상대방을 설득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은유적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모든 정치적 행위는 언어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는 점에서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점에서 은유는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고 세계의 특정한 사회적, 문화적 또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표현을 창조, 이의 제기 또는 합법화하기 위한 핵심 언어 장치이다(Charteris-Black 2004, Musolff 2012).

특히 최근에는 은유가 질병을 개념화하기 위한 중요한 언어적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지금까지 질병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의 국내·외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Chiang and Duann 2007, Gibbs and Franks 2002, Reisfield and Wilson 2004, Sontag 1978, 1989, 김철규 2021, 송현주 2020, 전혜영·유희재 2016 등). Sontag(1978, 1989)은 에이즈 환자를 대상으로 질병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질병은 전쟁이다] 은유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Semino(2021)는 전염병에 대한 다양한 은유를 설명하고 왜 다양한 은유들이 사용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의 질병 관련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는데, 전혜영·유희재(2016)는 메르스(MERS) 대한 은유 표현을 통해서 질병에 대한 은유 방식을 밝히고 있으며, 김철규(2021)는 코로나19 관련 신문 사설에 나타난 은유적 표현들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왜 은유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전쟁 은유가 전염병에 사용될 수 있는지의 적절성에 대해 경험적 측면, 감정적 측면, 그리고 구조적인 측면에서 논의를 하고, [코로나19는 전쟁이다](COVID-19 IS A WAR) 은유의 개념화 양상과 사상(mapping)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전쟁 은유가 유행병과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사용되는 이유를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정치담론에서의 인지적 은유

일찍이 Aristotle은 『시학』(Poetics)에서 은유란 알려지지 않은 것을 알려진 것과 비교함으로써 친숙하지 않거나 낯선 것을 친숙하게 만드는 기제로 간주되었다. 이 용어는 ‘넘어서’(over)라는 의미

의 ‘meta’와 ‘가져가다’(to carry)라는 의미의 ‘pherein’에서 연유된 회랍어 *metaphora*에서 유래하였다. 그 당시 은유는 문학 비평을 비롯하여 주로 수사학적, 시학적인 관점에서 논의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 인지언어학(Johnson 1987, Lakoff and Johnson 1980)이 본격적으로 출현하면서 은유에 대한 관점이 기존에 주장되었던 수사학적 영역이나 언어적 영역을 넘어서 일상 언어나 인간의 행동양식과 인지를 형성하는 기제로 간주되었다.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은유란 구체적인 영역인 근원영역(source domain)에서 목표영역(target domain)으로의 체계적인 인지적 사상(cognitive mapping)이라 정의하고, 이를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라 일컬었다¹. 인지언어학자들에 따르면, 우리의 개념화 과정은 대부분 은유적이며 신체화된 경험(embodied experience)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Kövecses 2005, Lakoff and Johnson 1980 등).

뿐만 아니라 은유는 사고를 재구성하는 것 이외에도 행동을 재구성한다. 은유는 언어보다 더 많은 것들, 예컨대,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 계획, 행동 양식, 우리 행위의 좋거나 나쁜 결과로 귀착되는 것들을 인도하는 강력한 틀(frame)이다(Lakoff 2004, xv). 다시 말해서, 은유가 특정한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구조화 될 때, 어떤 목표나 계획, 행동 및 결과를 생각할 수 있고 다른 것들은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든다. 은유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은유가 현실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 은유에 수반되는 구체적인 정책목표나 계획, 그리고 행동을 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비교적 단순하고 구체적인 정보의 관점에서 복잡하거나 추상적인 정보에 대해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은유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Gibbs 1994, Pinker 2007).

그렇다면 왜 은유가 대중 담론, 특히 정치담론에 널리 퍼지게 되었고, 왜 그렇게 광범위한 주제에 걸쳐 나타나는 것일까? Pérez López(2018)에 따르면, 정치담론에서 은유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은 모든 정치인의 무기고, 은유는 메시지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진 것 사이의 연결을 제공한다고 한다. Dittmer(1977) 역시 정치인들이 정치적 사건과 관계를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에게 덜 복잡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은유를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다르게 말하면, 특정한 어휘를 선택해서 은유적으로 사용한다면 메시지에 훨씬 더 익숙한 의미가 부여되고 의미 자체가 추상적인 수준에서 구체적인 수준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치인들이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일반 대중들에게 더 이해하기 쉽고 친숙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기제 중 대표적인 하나가 은유를 사용하는 것이다. 정치담론에서 은유가 특히 애용되는 이유는 은유가 특정 세부 사항과 연결을 부각(highlight)하면서 동시에 중요하지 않은 다른 것들을 은폐(hide)하는 방식으로 정치 및 사회적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와 해석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담론에서의 은유 사용은 다른 사람들의 신념이나 이데올로기를 통제하는 독창적인 전략으로 간주되기도 한다(Lakoff 2008).

¹ 근원영역이란 일상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윤곽이 주어지며 이미지가 풍부하고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지각할 수 있는 영역으로 여행, 운동, 전쟁, 건물, 동물, 자연물 등이 대표적인 근원영역이다. 반면에, 목표영역은 표현하려는 영역으로서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며 심리적인 경험과 관련된 개념으로 윤곽이 불명확하고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영역으로 인생, 사랑, 이론, 감정, 시간 등이 대표적인 목표영역이다.

2.2. 전염병이 왜 은유적으로 사용되는가?

앞서 은유란 근원영역에서 목표영역으로의 체계적인 인지적 사상임을 보았다.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은 서로 다르지만, 서로 간에 유사성(similarity) 내지는 대응(correspondence)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릴 시점인 2020년 3월 17일자 Johnson 영국 총리와 3월 22일자 Trump 전 미국 대통령의 다음 연설을 보자.

- (1) a. We have the resolve and the resources to win the fight, (Johnson 2020. 3. 17)
 b. I'm a wartime president. This is a war. This is a war. A different kind of war than we've ever had. (Trump 2020. 3. 22)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상대와의 격렬한 물리적 대결의 관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질병, 사망을 줄이려는 의도에서 전투(fight)나 전쟁(war)이란 단어를 사용한다. 전투나 전쟁이 코로나19와는 확연히 다르지만, 우리는 그것들 사이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전쟁이나 코로나19는 둘 다 노력과 집중을 필요로 하는 어렵고 위험한 일이고, 둘 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며, 때로는 죽음까지도 수반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하겠다.

바이러스를 퇴치하여 생명을 구하고 치료법을 찾기 위한 노력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전쟁으로서의 은유를 사용한 정치가는 Trump 이외에도 많은 정치지도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이는 진보든 보수든 특정 정당과는 무관하다. 실제로 민주당 소속 뉴욕 주지사인 Andrew Cuomo 역시 의료 종사자들을 군대에 비유해 공화당 소속 대통령인 Trump와 공유했다.

- (2) In this situation, there are no red states, and there are no blue states, and there are no red casualties, and there are no blue casualties. It is red, white and blue. This virus doesn't discriminate. It attacks everyone, and it attacks everywhere. The president said this is a war. I agree with that. This is a war. (Cuomo 2020. 3. 30)

(2)에서 빨간 색 주(state)²나 파란색 주에 상관없이 바이러스가 모든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음을 주지시키고 있다.

중요하게도, 은유란 현실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중립적인 방법이 아니라, 각각의 근원영역은 목표영역의 특정한 양상을 부각하지만, 다른 양상을 은폐함으로써 다른 추론과 평가를 용이하게 해준다(Lakoff and Johnson 1980). 이처럼 의사소통에서 은유는 어떤 현상에 대해 설명하거나 설득하고자 할 때 중요한 수사적 장치이다. 따라서 전 세계에서 질병과 죽음을 유발하고 정부와 국민들의 긴급하고 혁신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종종 은유를 통해 언급된다

² 미국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을 색으로 구분한 것은 1860년대 남북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는 공화당이 이끄는 북군 지역을 파란색으로 표시했고, 이후 선거에서도 공화당은 파란색, 민주당은 빨간색으로 표기한 지도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에 와서 일부 언론에서 민주당을 파란색으로, 공화당을 빨간색으로 표시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 대선에 이르러서야 모든 언론사들이 민주당은 파란색으로, 공화당은 빨간색으로 표기하여 **red state**, **blue state**라는 표현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였다.

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더욱이 은유는 질병을 개념화하기 위한 중요한 언어적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지금까지 질병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의 국내·외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Sontag 1978, 1989, Gibbs and Franks 2002, Reisfield and Wilson 2004, Chiang and Duann 2007, Kristina and Ana 2021, Semino 2021, 전해영·유희재 2016, 손달임 2020, 송현주 2020, 김철규 2021, 이선희 2021 등).

Sontag(1978, 1989)은 전염병이나 전 세계적인 위기 동안에 전염병과 싸우기 위한 전쟁으로서의 은유는 인류 역사에 걸쳐 반복되어 왔음을 지적하였는데, 특히 에이즈 환자를 대상으로 질병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질병은 전쟁이다] 은유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Gibbs & Franks(2002)는 6명의 여성 암 환자에 대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그들이 사용한 은유 표현에 대한 분석을 하였는데, 암 환자의 암에 대한 은유적인 담론은 은유적 사고 패턴을 반영한다고 주장하였다. Reisfield와 Wilson(2004)에 따르면, 은유는 의사들이 환자에게 복잡한 치료 과정을 이해시키는 데 시간적으로 효율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는 갑자기 불어 닥친 혼란스러운 상황에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환자가 질병을 이해하고 의사소통하며 통제 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는 것이다. Chiang과 Duann(2007)은 세 개의 주요 신문기사(대만의 The Liberty Times와 The United Daily News, 중국의 The People's Daily)에서 사스(SARS)에 대한 기본 전략과 개념적 은유를 분석함으로써 정치적 아젠다(agenda)와 이데올로기가 은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Semino(2021) 역시 전염병에 대한 다양한 은유를 설명하고 왜 다양한 은유들이 사용되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그녀는 코로나19에 대한 은유의 크라우드 소스 다언어 말뭉치(crowd-sourced multilingual collection)인 #ReframeCovid와 뉴스 기사 말뭉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어떠한 은유도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인 전염병처럼 복잡하고 장기적인 것의 모든 측면을 설명할 수 없지만, 전쟁 은유와 비교할 때 화재 은유(fire metaphor)가 전염병 및 전염병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공중 보건 조치를 포함하여 전염병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의사소통에 가장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Dada, Ashworth, Bewa와 Dhatt(2021)는 정치 지도자들이 전염병을 다루는 접근 방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들은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대만 등 세계 각국 정치 지도자들이 수행한 연설을 바탕으로 코로나19를 바라보는 남녀 지도자들의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남성 지도자들은 전염병의 경제적 영향에 집중한 반면, 여성 지도자들은 정신 건강, 가정 폭력과 같은 광범위한 사회 복지 서비스에 집중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를 기술함에 있어서 남성 지도자들은 여성 지도자들보다 전쟁 은유를 더 자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최근 국내에서도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의 질병 관련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는데, 전해영·유희재(2016)는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에 대한 은유 표현을 통해서 질병에 대한 은유 방식을 밝히고 KBS와 JTBC의 보도 내용을 대상으로 은유가 이념적으로 어떻게 서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송현주(2020)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출간된 단행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한 개념화 양상을 방역, 치료, 전염병의 특성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김철규(2021)는 나아가 코로나19 관련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의 사설에 나타난 은유적 표현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이러한 은유적 표현들이 어떠한 개념적 은유를 구체화시키는지, 그리고 이러한 개념적 은유를 통해 어떠한 요소들이 부각과 은폐가 되는지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3. 전쟁 은유

3.1. 왜 전쟁 은유가 사용되는가?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은 군사 은유(military metaphor), 보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전쟁 은유가 대중 담론, 특히 정치담론에 뿌리깊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Flusberg, Matlock and Thibodeau 2018, Neshkovska and Trajkova 2020). Flusberg, Matlock와 Thibodeau(2018: 9-10)의 다음 내용을 보자.

- (3) Many common topics of discussion resemble war. They share structural relations and can evoke similar emotions. Everything from arguments, sports, politics, and relationships to healthcare, fundamental biological phenomena (e.g. “invasive” species), and even scientific research have something in common with war. Arguments, politics, and sports, for example, are like war because they involve a conflict between opposing forces, require strategic decisions to be made about how to allocate resources, unfold over time, and have identifiable winners and losers. As a result, the domain of war can serve as an apt source domain to structure how we communicate and think about a wide range of topics.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토론의 공통된 주제는 전쟁과 유사하며 구조적 관계를 공유하고 비슷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논쟁, 정치 및 스포츠는 상대방과의 경쟁을 내포하고 있으며 결국에는 승자와 패자로 나누어지는 전략적 결정을 요구한다. 따라서 전쟁의 영역이 우리가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어떻게 의사소통하고 생각하는지를 구조화하는 데 적절한 근원영역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전쟁 은유가 의학에 최초로 등장한 예는 1627년 영국 시인 John Donne이 자기 자신을 심장을 날려버리는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기술한데서 시작하였다고 알려져 있다(Li 2021). 이후 17세기 중반 영국 의사였던 Thomas Sydenham은 질병은 맞서 싸워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하였으며, 프랑스 생화학자이면서 세균학자인 Louis Pasteur는 질병을 침략하는 군대가 전쟁터가 되어 가는 몸을 에워싸고 있는 것으로 기술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전쟁 은유가 정치 캠페인에서부터 사스, 메르스, 조류 독감, 암과의 싸움, 범죄, 마약, 빈곤, 에이즈, 심지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와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Chiang and Duann 2007, Joye 2010). 예컨대, 1964년 Johnson 전 미국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소위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을 공포했으며, 1971년 Nixon 전 미국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war on drug)과 ‘범죄와의 전쟁’(war on crime)을 확대하여 ‘암과의 전쟁’(war on cancer)을 선포하였다. 1974년 그 당시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Ford 전 미국 대통령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war on inflation)을 선언하였다. 심지어 최근에는 ‘크리스마스와의 전쟁’(war on Christmas), ‘과학과의 전쟁’(war on science), ‘경찰과의 전쟁’(war on cops), ‘총과의 전쟁’(war on guns), ‘캘리포니아와의 전쟁’(war on California), ‘섹스와의 전쟁’(war on sex), ‘진실과의 전쟁’(war on truth)을

비롯하여 전쟁 은유에 대한 서적들이 많이 출간되었다(Bates 2020, Flusberg, Matlock and Thibodeau 2018). 실제로 Karlberg와 Buell(2005)의 연구에 따르면, 1981년부터 2000년 사이에 발간된 Time지에 실린 모든 기사의 약 17%, Newsweek지에 실린 모든 기사의 약 15%가 전쟁 은유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전 세계가 코로나19 전염병과 싸우면서 세계 정치지도자들이 이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전쟁 은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Kristina and Ana 2021). Xi Jinping 중국 국가 주석은 코로나 19에 대해 인민전쟁(people's war)을 벌이겠다고 공언했으며 Trump 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을 중국 바이러스에 맞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자국의 전시 대통령(wartime president)이라고 표현했다. 마찬가지로 Johnson 영국 총리 역시 자신의 정부가 다른 전시 정부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전쟁 방(war room)의 설치를 발표하고 그의 각료들은 전투 계획(battle plan)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Macron 프랑스 대통령도 대국민 연설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적과 전쟁 중'이라고 언급했다(We are at war against an invisible enemy)(Abdel-Qader and Al-Khanji 2022).

그렇다면 왜 전쟁 은유가 정치담론에 널리 퍼지게 되었고, 왜 그렇게 광범위한 주제에 걸쳐 나타나는 것일까? 은유는 사람들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거나 추상적인 정보에 대해 말하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Gibbs 1994, Lakoff and Johnson 1980, Pinker 2007). 또한 전쟁 은유는 추상적이고 복잡한 현상에 대해 의사소통하고 사고하기 위해 제공하는 구조적 프레임 이외에도, 전쟁 은유는 전달할 수 있는 최대의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질병의 관점에서 마약이나 약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것과 전쟁의 관점에서 마약이나 약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확연히 다른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 질병의 언어를 사용할 경우, 연민, 관심, 혐오 등의 감정을 유발하지만, 전쟁의 언어를 사용할 경우, 그 보다 훨씬 강한 위협, 공포, 공황과 같은 감정을 유발한다(Elwood 1995).

따라서 Flusberg, Matlock과 Thibodeau(2018), Kristina와 Ana(2021) 등이 지적했듯이, 이처럼 전쟁 은유를 사용하는 것은 때때로 남성적이며, 권력에 기반을 두고 가부장적이며 폭력적이기 때문에 일부 비판을 받아왔지만 언어가 사회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구조와 과정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언어적 의미는 텍스트와 문맥 사이의 특정한 관계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같은 엄중한 건강 위기 동안에 전쟁 은유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실제로 수사학 도구로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많은 담론 분석가들이 정치적 의사소통에서 전쟁 은유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3.2. 전쟁 은유의 적절성

본 장에서는 전쟁 은유가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 대유행병에 왜 적절하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경험적, 감정적, 구조적 측면에서 논의할 것이다.

3.2.1. 경험적 측면

우리의 사고와 개념을 구조화하는데 은유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가장 빈번하고 관습적

인 은유는 기본적으로 신체화된 감각 운동 경험(embodied sensorimotor experience)에 바탕을 두고 있다(Lakoff and Johnson 1980).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수없이 많은 물리적 경험과 신체적 경험을 한다. 수많은 경험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반복적으로 체험하는 경험으로부터 구체적인 개념을 얻게 되고 구체적인 개념을 덜 구체적인 경험에 투사하여 이해하고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우리의 수많은 사고 작용은 은유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은유적 사고는 신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은유는 신체적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권연진 2017a). 실례로 전쟁의 경우를 들어보자. 전쟁은 인간 경험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우리 중에는 실제로 전쟁에 참여했던 직접적인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전쟁에 대한 실상을 배우기도 한다. 또는 신문이나, TV, 미디어를 통해 전쟁을 간접적으로 접하기도 하고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나 비디오 게임에서 전쟁에 대한 광범위한 간접 경험을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실제 전쟁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고 질병에 쉽게 노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과 전쟁에 대해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군사 캠프가 종종 위험한 감염의 원천이었으며 생물학 무기는 질병으로 상대방 군대를 약화시키는데 사용되기도 하였다. 즉, 전쟁 은유는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에서 전쟁에 대한 노출이 빈번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Grady(1997)는 이러한 경향을 ‘어려움은 적이다’(DIFFICULTIES ARE OPPONENTS)라는 일차적 은유(primary metaphor)를 통해 이해하고자 하였다³.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전쟁 영역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제공하고 전쟁 은유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것이 왜 전쟁 은유가 암이나 기후온난화(Atanasova & Koteyko 2017)에서부터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싸움, 전투나 전쟁의 은유를 통해서 보편적으로 논의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다(Flusberg, Matlock and Thibodeau 2018).

3.2.2. 감정적 측면

전쟁 은유는 군사적 대결이 없다고 하더라도 두려움과 불안, 공포감 같은 강한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주의를 끌며 위기의 심각성을 전달하는 도구이다. 따라서 이것이 정치담론에서 전쟁 은유의 주요한 기능 중의 하나라고 언급되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암, 빈곤, 마약, 테러와 같은 문제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기 위해 전쟁 은유를 사용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Alexandrescu 2014, Coleman 2013, George, Whitehouse and Whitehouse 2016). 예를 들어, 2004년 US War College에서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연설에서 테러리스트들은 자기들의 유일한 영향력은 폭력이며 유일한 의제는 죽음이라고 스스로 자인하였다. 이것이 암시하는 바, 전쟁 프레임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전쟁 은유에 의해 유발된 두려움이나 공포는 기억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된다. 다시 말해서, 두려움이나 공포 같은 감정은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신념을 바꾸고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행동을 취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전쟁의 언어는 질병이 공중보건에 미치는 위협을 인식하도록 하며, 결과적으로 질병의 근본 원인이나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 개발비를 늘리게 마련이다. 실제로 Nixon 전 미국 대통령의 1971년 암과의 전쟁 선언으로 그 당시 암 연구를 위한 기금이 대폭 증가하였으

³ Grady(1997)는 일차적 은유와 복합적 은유(complex metaphor)라는 두 유형의 개념적 은유가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일차적 은유는 기본적인 반면, 복합적 은유는 일차적 은유를 통합해서 구성된다고 보았다.

며, Johnson 전 미국 대통령의 빈곤과의 전쟁도 비슷한 효과를 가져왔다(Almond, Hoynes and Schanzenbach 2011, Jorgenson 1998).

더욱이 Flusberg, Matlock과 Thibodeau(2017)는 전쟁 은유가 어떻게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 연구를 하였는데, 사람들은 기후 변화가 경쟁 관계에서의 상대방이 아닌 전쟁에서의 적으로 묘사될 때 기후 변화가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연구에서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전쟁 은유를 사용한 문장을 읽은 참가자들은 경쟁 은유나 비 은유적 문장들을 접한 실험 참가들에 비해 기후 보존 행동을 증가시키려는 의지가 훨씬 강했다. 뿐만 아니라 약물 사용의 위험을 과장하여 공포를 조성하고 부정적인 관념을 강화하며 비생산적인 정책 대응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마약 전쟁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했다(Alexandrescu 2014). 질병이 전쟁에서 적이 될 때, 질병을 앓는 사람들은 전쟁이 벌어지는 전쟁터로 전락한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암과의 투쟁을 여행이 아닌 전투로 개념화한 사람들은 치료를 받는 동안에 더 많은 우울증과 불안의 감정을 경험했다(Degner, Hack, O'Neil and Kristjanson 2003). 따라서 현재의 코로나19는 지난 100여년 동안 최악의 전염병 중 하나로 기록될 수 있기 때문에 전쟁 은유는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심각하여 받아들여야 한다는 강력한 감정적 메시지를 전달하며 코로나 대유행이 전쟁 은유로 개념화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언어학적으로 전쟁 은유는 군사적 대립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기의 중대성을 전달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중대하고 예외적으로 긴급한 상황은 종종 짧은 기간 동안에 인력이나 물자를 비롯하여 다른 필수품들을 대략으로 지원해야만 한다. 이런 점에서 전쟁 은유는 물자를 확보하고 전염병과 사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경각심을 자극하는데 유용하다. 더욱이 정부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지가 없다면 코로나 상황을 적절하게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예컨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e)와 마스크 착용하기, 가능하면 외출 삼가기 등의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만 한다.

3.2.3. 구조적 측면

전쟁 은유가 범문화적으로 널리 퍼져 있으며 이는 범문화적인 이유와 관련이 있다(Flusberg, Matlock and Thibodeau 2018). 우선 구조적으로 본다면, 전쟁 은유는 반대 세력 간의 전투나 시간과 공간에 걸쳐 전개되는 일련의 전투 사건과 같은 서로 다른 다양한 상황에 쉽게 사상될 수 있는 기본적인 도식적 지식을 이용한다. 예컨대, 원형적인 전쟁에 대한 도식은 서로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투에 관여하고 있는 그룹으로 우리 그룹(in group)과 반대 그룹(out-group) 사이의 명확한 구분이 있는 전투를 포함하고 있다. 공격과 방어를 위해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있으며, 지상군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사병이나 전술을 지휘하는 장군과 같은 위계가 있듯이, 직접 현장에서 구조 활동 내지는 의료 활동을 진행하는 의료진과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확대하고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를 통해 감염병을 예방하고 주요 감염병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는 질병관리청 간의 위계 또한 존재한다.

전쟁 은유는 특히 질병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자주 사용되곤 하는데, 우리의 일반적인 지식과 모든 질병에 대한 이해는 그것을 공격하는 적군(바이러스, 박테리아)과 방어군(항체)간의 전쟁으

로 개념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암이나 코로나19와 같은 극도로 심각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질병은 질병과의 싸움에서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전쟁과의 유추를 더욱 강화하므로 언어에는 *lost the battle, but won the war* 혹은 반대로 *lost the battle for life, emerged victorious from the battle with the disease*와 같은 표현이 풍부하다(Kristina and Ana 2021).

전쟁의 근원영역과 코로나19 전염병의 목표 영역 사이에 인지적으로 사상과 유추가 가능하다. 전염병의 목표 영역은 실제적이고 절박한 위협이기 때문에 전쟁의 근원영역에 쉽게 사상된다. 그것은 전쟁의 요소와 주요한 구조적 관계를 공유하며 이 은유적 전쟁에서 승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명확한 방법이 있다. 전쟁과 전염병 간의 구조적 대응에는 바이러스를 적으로, 의료전문가를 군대로, 환자나 사망자를 사상자로, 바이러스 퇴치를 승리로 사상되는 것이다(Semino 2021).

전쟁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황은 엄청난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정부에게도 엄청난 도전이다. 전략은 국가적 차원에서 채택되고 일상생활은 자신의 삶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고통, 공포, 두려움을 포함한다. 우리는 언론 상으로 거의 매일 감염자 수와 희생자 수를 접하며 그에 따라 성공과 실패를 평가한다. 전쟁 은유에 대한 연구는 전쟁 은유의 구조적 구성요소에 초점이 맞추지만, 은유의 광범위한 함의는 여러 영역에서 인식된다. 예를 들어, 전쟁의 구조와 의학의 구조 사이에는 여러 사상이 일어난다. 의학은 죽음과의 전쟁이다. 질병은 우리의 신체를 공격하고 의사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개입한다. 우리는 거의 끊임없이 암이나 바이러스 같은 다양한 질병에 대한 전쟁에 노출된다. 의사나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고안된 무기로 질병들과 싸운다.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군인이다. 전쟁은 다양한 방식으로 모두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때로는 국가 간 또는 개인 간의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또한 전쟁이 종료된 이후에도 복구비용 등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게 지출되듯이, 코로나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 실업, 빈곤,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적인 결과를 낳는다.

4. [코로나19는 전쟁이다] 은유의 개념화 양상 및 사상

코로나19 전염병과 관련이 있는 은유적 표현을 분석함에 있어 전쟁 은유, 여행 은유, 바다 은유, 인간으로서 국가 은유, 교사 은유, 생명체 은유, 자연 재앙 은유, 화재 은유, 동물 은유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은유의 개념화 양상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은유가 전쟁 은유라는 연구가 상당히 있다(Neshkovska and Trajkova 2020, Philipp and Marianna 2020, Prokhorova et al. 2021). 특히 전쟁 은유는 정치적 캠페인에서부터 암과의 싸움, 범죄, 마약, 가난, 심지어 켈러드에 대한 전쟁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걸쳐 사용되었다(Flusberg, Matlock and Thibodeau 2018).

본 장에서는 정치담론 상에서 코로나19 관련 은유적 표현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코로나19는 전쟁이다] 은유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념화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상되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전쟁 은유는 전쟁의 영역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to fight, to combat, to win, to defeat, to overcome, victory, war, battle, enemy, frontline* 등과 같은 어휘를 사용하여 코로

나19로 인한 질병의 영역인 근원영역으로 사상된다.

4.1. 적

모든 전쟁에서 적(enemy)은 필수불가결한 개념인데, 그 이유는 전쟁의 개념이란 적이 없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전쟁 은유를 사용할 때, 무의식적으로 적의 존재를 전제한다. 정치가들의 연설에서 적의 개념은 코로나19에 맞추어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 (4) a. The biggest enemy China faced in this war is undoubtedly the novel coronavirus. As an enemy, the virus needs “contained” and “blocked”. (Xi Jinping 2020. 3. 20)
- b. This enemy can be deadly, but it is also beatable. (Johnson 2020. 3. 17)
- c. The enemy is there, invisible, elusive, and it’s making headway. And that requires our widespread mobilization. (Macron 2020. 3. 17)

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의 연설문에서 block(차단)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Xi Jinping이 신종 코로나19의 위력을 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Johnson 영국 총리 역시 바이러스를 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적, 즉 바이러스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되며 이 적과의 전쟁에서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하며 또한 감염을 통해 사람들을 죽이는 바이러스의 살인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인들의 연설에서 적의 개념은 아주 명백하다.

다른 정치지도자와 마찬가지로 Trump 전 미국 대통령도 전쟁 은유에서 바이러스를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 (5) a. The world is at war with a hidden enemy. WE WILL WIN. (2020. 3. 18)
- b. It’s now attacking—the enemy is attacking 144 countries at this moment. One hundred and forty—four. That’s unthinkable.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this. And it’s vicious. It is vicious. (2020. 3. 22)
- c. Like our earlier, very aggressive actions with China, this measure will save countless lives. (2020. 3. 13)

Trump는 적이 분명 있고 적은 시야에서 가려져 있으며, 이 전쟁은 전통적이고 눈에 보이는 적과의 전쟁과는 다른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한 명의 적군이 세계 인구의 4분의 3 이상을 공격하는 사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Trump는 중국 바이러스가 적이라고 여러 차례 주장하면서 국가 행위자와 바이러스의 연관성을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코로나19를 전파시킨 책임이 있는 적으로 간주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인 코로나19를 눈에 보이는 적인 중국에 의한 바이러스로 만들고, 바이러스의 공격을 중국 국가로 전이시키고 있는 것이다(Bates 2020).

4.2. 군인

전쟁 은유에서 군인은 필수적이다. 실제 전쟁에서는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싸우지만, 정치지도자들이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전쟁 은유를 사용할 때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종사자와 공무원들을 군인으로 간주하고 개념화한다. 이것은 코로나19를 퇴치하는 과정을 전쟁의 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인지언어학적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 (6) a. I would like to express my high respect to the vast number of medical workers, officers, and men of the People's Liberation Army, community workers, public security officers, grassroots cadres, volunteers and comrades in all fields who are fighting in the front line of epidemic prevention and control! (Xi Jinping 2020. 9. 8)
- b. Our civil servants, healthcare workers, doctors, nurses, ... on the front line are going above and beyond the call of duty to save lives and care for the sick. (Macron 2020. 4. 14)
- c. I want to thank everyone who is working flat out to beat the virus, everyone from the supermarket staff to the transport workers, to the carers, to the nurses and doctors on the frontline. (Johnson 2020. 3. 23)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바이러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업 종사자들을 전쟁에서 군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군인에 대한 비유는 전염병에 대한 전쟁의 비유와 일치한다. 왜냐하면 적인 바이러스는 의사와 간호사,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정부는 전염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므로 코로나19가 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과의 전쟁이라는 것이다.

세계 정치지도자들의 은유와 마찬가지로 Trump의 연설에서도 의료종사자들을 군인으로 은유적으로 개념화하는 예들이 많다.

- (7) a. I want all Americans to understand: we are at war with an invisible enemy, but that enemy is no match for the spirit and resolve of the American people ... It cannot overcome the dedication of our doctors, nurses, and scientists—and it cannot beat the LOVE, PATRIOTISM, and DETERMINATION of our citizens. Strong and United, WE WILL PREVAIL! (2020. 3. 18.)
- b. This afternoon, I'll be meeting with nurses on the frontlines of the battle against the virus. They are truly American heroes. They want to get it done. They're incredible people ... They're very brave. They're taking a lot of risk. Incredible. (2020. 3. 19.)
- c. Because of the sacrifices of our great doctors and nurses and healthcare

professionals, the brilliance of our scientists and researchers, and the goodness and generosity of our people, I know that we will achieve victory and quickly return to the path of exceptional health, safety, and prosperity for all of our citizens. (2020. 3. 27.)

(7a)에서 의사, 간호사, 그리고 과학자는 바이러스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업군이다. 사랑, 애국심, 그리고 결단이라는 3개의 단어는 전문가들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단어들은 의료 전문가들을 시민에서 군인으로 탈바꿈시킨다. 특히 (7b-c)에서처럼 바이러스와 위협을 감수하며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전쟁의 최전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진정한 미국의 영웅으로 간주하고 있고 이러한 수사적 언어는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간호사들을 군인으로 개념화하고 있는 것이다⁴.

4.3. 승리

전쟁의 최종 목표는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쟁의 목표는 무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인데 반해, 이번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는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것이 최종 목표일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예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8) a. Wuhan and Hubei are the top priorities in China's epidemic prevention and control, and the main battlefield of the war against the virus. If Wuhan wins, Hubei wins. If Hubei wins, the whole country wins. (Xi Jinping 2020. 3. 13)
- b. I'm certain of one thing; the more quickly we act together, the more we'll overcome this ordeal. (Macron 2020. 3. 16)
- c. While undoubtedly there are huge challenges ahead, I have every confidence in the resilience and resolve and good sense of people across the country and that together we will overcome this virus, just as Diwali teaches us that light triumphs over darkness, good over evil, knowledge over ignorance,⁵ (Johnson 2020. 11. 8)

정치지도자들은 바이러스라는 적과의 전쟁에서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라는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협력하고 일치단결하며 연대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다음으로 Trump의 연설을 보자.

⁴ Bush 전 미국 대통령이 1990년 걸프전(the Gulf War)에서 사용된 개념적 은유로 [이라크는 악당이다](IRAQ IS A VILLAIN), [쿠웨이트는 희생자이다](KUWAIT IS A VICTIM), [이라크 국민은 희생자이다](IRAQIS ARE VICTIMS), 그리고 [미국은 영웅이다](AMERICA IS A HERO) 등 4가지 은유가 있음이 언급되었는데, 그 당시 이라크 국민들에게 자유를 가져다주고, 결국에는 미국이 승리할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미국을 영웅으로 간주하여 개념화하였다(권연진 2017b).

⁵ Diwali(디왈리)는 힌두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축제 중 하나로 보통 5일 동안 지속되는데, 왈리는 '빛이 어둠을 이기고, 선이 악을 이기고, 지식이 무지를 이기다'를 상징한다.

- (9) a. As long as I am your President, you can feel confident that you have a leader who will always fight for you, and I will not stop until we win. This will be a great victory. This is going to be a victory. (2020. 3. 23.)
- b. Normal life will return. And our economy will rebound very, very strongly. But, right now, in the midst of this great national trial, Americans must remain united in purpose and focused on victory. (2020. 3. 23.)
- c. We have to help the worker. We have to save the companies. Because as soon as we're finished with this war—it's not a battle; it's a war—as soon as we're finished with this war, our country is going to bounce back like you've never seen before. (2020. 3. 23.)

(9a)에서 Trump는 정치지도자로서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싸울 것이라는 확신을 주면서 전쟁이 승리로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9b-c)에서 알 수 있듯이, 승리는 모든 전쟁 은유에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일반적인 질병의 전쟁 은유와는 달리 이번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 기준은 바이러스를 퇴치하거나 생명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쟁 전의 상태와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서, 경제를 구하는 것과 경기 회복이 승리의 핵심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정치담론 상에 코로나19 관련 전쟁 은유의 근원영역에 대해 살펴보았다. 개념적 은유 이론에 의하면, 근원영역에서 목표영역으로의 개념적 전이(transfer)를 은유적 사상이라 부른다. 코로나19 전염병을 전쟁 은유로 개념화함에 있어서 근원영역의 구성 요소들과 목표영역의 구성 요소들 사이의 대응관계, 즉, 은유적 사상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0) [코로나19는 전쟁이다] 은유의 사상 관계

근원영역(전쟁)		목표영역(코로나19)	관련 어휘들
전쟁참여자(아군)	⇒	의료진(의사, 간호사), 공무원 등	soldier, hero, public servant, teacher, veteran, warrior, volunteer 등
전쟁참여자(적군)	⇒	코로나19	(invisible) enemy, physical assailant, deadly killer, invisible killer, invisible mugger 등
전쟁 장소	⇒	병원, 보건소, 시장 등	battlefield, battleground, frontline 등
전쟁에 대한 기술 (description) 또는 전쟁 과정	⇒	전투, 공격, 침입, 장기전, 단기전	war, invasion, aggression, battle, fight, defend 등
전쟁 결과	⇒	승리, 극복	victory, conquer, beat, defeat, death, surrender 등

위에서 근원영역의 구성요소로는 전쟁참여자(아군 및 적군), 전쟁 장소, 전쟁에 대한 기술 또는 전쟁 과정, 전쟁 결과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목표영역의 구성요소로는 의료진,

코로나19, 병원, 전투, 장기전, 승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에 대응되는 관련 어휘들은 위 (10)과 같다.

5. 전쟁 은유의 사용 이유

전쟁 은유는 정치담론에서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주요한 수단인데, 정치인들은 코로나19 사태에 전쟁 은유를 사용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Castro Seixas(2021)가 언급하듯이, 위기 커뮤니케이션(crisis communication)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위기에 대한 대응의 효율성을 위해 조직의 관리를 강조하는데, 위기 커뮤니케이션은 평판 손상을 제한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Payne 2006).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질서를 재확립하며 대중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 중 일부는 때때로 충돌할 수 있으며 정부기관, 언론 또는 대중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은 다른 목표를 우선시할 수 있다. 코로나19 전염병은 전 세계적으로 대응과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힘겨운 투쟁이었다. 위기란 일반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고 언제 발생할지 예측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코로나19는 예전의 다른 전염병보다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전염성이 강하며 오래 지속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여러 변이형들이 각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 전염병의 종식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입원이 필요한 코로나19 환자의 급격한 증가는 많은 국가 보건 시스템의 결함과 준비 부족, 그리고 전염병 대유행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부족을 부각시켰다. 또한, 이 바이러스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사회 문화적인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는 다른 위기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회적, 경제적 취약성, 특히 자영업자를 비롯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더 취약하게 만드는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코로나19는 전염병의 역사상 최악의 상황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고 결국 바이러스를 전쟁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위기 커뮤니케이션을 전달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국가적인 통합과 사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함이다. 코로나19는 우리의 행동양식과 사회관계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예컨대,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통은 비대면 언택트(untact)로 바뀌었고, 배달과 재택근무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위기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사기를 유지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위기관리를 돕기 위해 지역 사회의 단결과 국가적인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쟁 은유는 코로나19와 같은 보이지 않는 적(invisible enemy)과 싸우기 위해 시민들의 일반적인 동원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코로나19의 시대에 한 사람의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으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이 멈춰지고 국경이 봉쇄되는 오늘날 세계의 많은 정치 지도자들은 전쟁 은유를 사용하여 국가적인 통합과 공동체 의식을 호소하고 있다. 어려운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고통이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우리 모두가 공통의 적, 즉, 바이러스와 함께 싸우기 위해 같은 배 안에 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전쟁 은유를 사용함으로써 국가적인 통합과 사회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키고자 한다.

셋째, 위기 상황에서 동정심과 공감 능력은 메시지의 신뢰성을 높이고 수신자의 정당성을 향상

시키는 수단이다. 따라서 정치지도자들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 코로나19의 희생자들과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동정심을 표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의 정치지도자들은 전쟁 은유를 사용함으로써 코로나19를 공동의 적으로 개념화함으로써 세계 평화를 호소하기도 한다. 이것은 또한 역설적이게도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휴전을 촉구하는 메시지도 전달하고 있다. Guterres UN 사무총장의 다음 연설을 보자.

- (11) Our world faces a common enemy: COVID-19. The virus does not care about ethnicity or nationality, faction or faith. It attacks all, relentlessly. Meanwhile, armed conflict rages on around the world. The most vulnerable—women and children,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marginalized and the displaced—pay the highest price. ... The fury of the virus illustrates the folly of war. End the sickness of war and fight the disease that is ravaging our world. That is why today, I am calling for an immediate global ceasefire in all corners of the world. It is time to put armed conflict on lockdown and focus together on the true fight of our lives (Guterres, UN 사무총장 2020. 3. 23))

위의 연설에서 알 수 있듯이, Guterres 사무총장은 전쟁이 국민, 의료체계, 그리고 국가를 더욱 더 취약하게 만들고 따라서 바이러스의 공격에 대해서도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바이러스의 분노와 전쟁의 어리석음을 비교하고 전쟁의 병을 끝내고 세계 평화를 호소하기 위해 전쟁 은유를 사용하고 있다.

6. 결론

지금까지 정치담론 상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왜 은유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코로나19는 전쟁이다] 은유의 개념화 양상과 사상 분석함으로써 전쟁 은유가 유행병과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사용되는 이유를 고찰하였다.

정치담론 상에서 코로나19 은유의 유형별로 빈도수가 높은 은유인 전쟁 은유가 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경험적, 감정적, 구조적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경험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사고와 개념을 구조화하는데 은유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관습적인 은유는 신체화된 1차적인 감각 운동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인지언어학의 기본 정신과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을 보았다. 감정적 측면에서, 전쟁 은유는 군사적 대결이 없다고 하더라도 두려움과 불안감, 그리고 공포감 같은 강한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주의를 끌며 위기의 심각성을 전달하기에 적절하다. 따라서 세계의 정치지도자들이 감정적인 측면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을 언급할 때 일부 언어 표현을 은유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구조적 측면에서, 전쟁 은유는 반대 세력 간의 전투나 시간과 공간에 걸쳐 전개되는 일련의 전투 사건과 같은 서로 다른 다양한 상황에 쉽게 사상될 수 있는 기본적인 도식적 지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정치담론 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코로나19는 전쟁이다] 은유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념화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상되는지에 대해 근원영역인 전쟁과 목표영역인 코로나19의 각 구성요소별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전쟁 은유가 유행병과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사용되는 이유를 위기 커뮤니케이션, 국가적인 통합과 사회 공동체 의식 함양, 동정심과 공감 능력 배양, 세계 평화의 호소란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참고 문헌

- 권연진(Kwon, Y-J). 2017a. 『인지언어학에서 은유의 보편성과 상대성』(*Universality and Relativity of Metaphors in Cognitive Linguistics*). 서울: 한국문화사 (Seoul: Hankookmunhwasa).
- 권연진(Kwon, Y-J). 2017b. 프레임과 은유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연구 - 정치 분야를 중심으로 (Cognitive linguistic study of frames and metaphors: Focusing on politics). 《인문과학 연구》(*Studies in Humanities*) 53, 85-108.
- 김철규(Kim, C-K). 2021. 신문 사설의 코로나19 사태 관련 은유적 표현에 의한 부각과 은폐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highlighting and hiding caused by metaphorical expressions in newspaper editorials on the covid 19 pandemic). 《언어과학》(*Journal of Language Sciences*) 28(2), 49-78.
- 손달임(Son, D-L). 2020. 코로나19 관련 뉴스 보도의 언어 분석- 헤드라인에 반영된 공포와 혐오를 중심으로(A study on the expressions used in covid-19 news: Focusing on fear and hate reflected in headlines) 《이화어문논집》(*Ewhakl*) 51, 137-166.
- 송현주(Song, H-J.). 2020. 전염병의 개념화 양상-코로나19를 중심으로(Conceptualizing pandemic diseases: The case of covid-19). 《동서인문》(*Dongseoinmoon*) 14, 103-129.
- 이선희(Lee, S-H). 2021. 현대중국어 코로나19 언론 보도의 전쟁 은유 연구(A study on war metaphors in media coverage of covid-19 in modern Chinese language). 《동북아문화 연구》(*Journal of North-East Asian Cultures*) 66, 151-166.
- 전혜영, 유희재(Jeon, H. Y. and H. J. Yu). 2016. <메르스>에 대한 은유와 이데올로기적 함축—KBS와 JTBC 뉴스 보도를 중심으로(Metaphors for MERS and their ideological meaning: Focusing on the news reports from Korean media KBS and JTBC). 《한국어학》(*Korean Linguistics*) 72, 199-225.
- Abdel-Qade, L. M. and R. R. Al-Khanji. 2022. Conceptual metaphor in covid-19 speeches of the American president Joe Biden. *Theory and Practice in Language Studies* 12(4), 810-818.
- Alexandrescu, L. 2014. Mephedrone, assassin of youth: The rhetoric of fear in contemporary drug scares. *Crime, Media, Culture* 10(1), 23-37.
- Almond, D., H. Hoynes and D. Schanzenbach. 2011. Inside the war on poverty: The impact

- of food stamps on birth outcom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3(2), 387–403.
- Atanasova, D. and N. Koteyko 2017. Metaphors in guardian online and mail online opinion–page content on climate change: War, religion, and politics. *Environmental Communication* 11(4), 452–469.
- Bates, B. R. 2020. The (in)appropriateness of the war metaphor in response to SARS–CoV–2: A rapid analysis of Donald J. Trump’s rhetoric. *Frontiers in Communication* 5, 50. <https://doi.org/10.3389/fcomm.2020.00050>
- Castro Seixas, E. 2021. War metaphor in political communication on covid–19. *Frontiers in Sociology* 5, 1–11.
- Charteris–Black, J. 2004. *Corpus Approaches to Critical Metaphor Analysis*. New York, NY: Palgrave Macmillan.
- Chiang, W.–Y. and R. F. Duann. 2007. Conceptual metaphors for sars: ‘War’ between whom? *Discourse and Society* 18(5), 579–602.
- Coleman, M. P. 2013. War on cancer and the influence of the medical–industrial complex. *Journal of Cancer Policy* 1(3), e31–e34.
- Dada, S., H. C. Ashworth, M. J. Bewa and R. Dhatt. 2021. Words matter: Political and gender analysis of speeches made by heads of governmen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British Medical Journal Global Health* 6(1), 1–12.
- Degner, L. F., T. Hack, J. O’Neil and L. J. Kristjanson. 2003. A new approach to eliciting meaning in the context of breast cancer. *Cancer Nursing* 26(3), 169–178.
- Dittmer, L. 1977. Political culture and political symbolism: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World Politics* 29(4), 552–583.
- Elwood, W. N. 1995. Declaring war on the home front: Metaphor, presidents, and the war on drugs. *Metaphor and Symbol* 10(2), 93–114.
- Flusberg, S. J., T. Matlock and P. H. Thibodeau. 2017. Metaphors for the war (or race) against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Communication* 11(6), 769–783.
- Flusberg, S. J., T. Matlock, and P. H. Thibodeau. 2018. War metaphors in public discourse. *Metaphor and Symbol* 33(1), 1–18.
- George, D. R., E. R. Whitehouse and P. J. Whitehouse, 2016. Asking more of our metaphors: Narrative strategies to end the “war on alzheimer’s” and humanize cognitive aging. *The American Journal of Bioethics* 16, 22–24.
- Gibbs, Jr. R. W. 1994. *The Poetics of Mind: Figurative Thought, Language, and Understand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bbs Jr. R. W. and H. Franks. 2002. Embodied metaphor in women’s narratives about their experiences with cancer. *Health Communication* 14(2), 139–165.
- Grady, J. 1997. *Foundations of Meaning: Primary Metaphors and Primary Sense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Johnson, M. 1987. *The Body in the Mind: The Bodily Basis of Meaning, Imagination and Reas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Jorgenson, D. W. 1998. Did we lose the war on poverty?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2(1), 79–96.
- Joye, S. 2010. News discourses on distant suffering: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the 2003 SARS Outbreak. *Discourse and Society* 21, 586–601.
- Karlberg, M. and L. Buell. 2005. Deconstructing the ‘war of all against all’: The prevalence and implications of war metaphors and other adversarial news schema in TIME, Newsweek, and Maclean’s. *Journal of Peace and Conflict Studies* 12(1), 22–39.
- Kövecses, Z. 2005. *Metaphor in Culture: Universality and Vari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ristina, S. and O, Ana. 2021. A war on war metaphor: Metaphorical framings in Croatian discourse on covid–19. *Rasprave: Časopis Instituta za hrvatski jezik i jezikoslovlje* 47(1), 173–208.
- Lakoff, G. 2004. *Don’t Think of an Elephant: Know Your Values and Frame the Debate*. Chelsea Green Publishing.
- Lakoff, G. 2008. *The Political Mind: Why You Can’t Understand 21st–Century American Politics with an 18th–Century Brain*. New York: Viking Penguin.
- Lakoff, G. and M. Johnson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i, Z. 2021. War metaphors in Covid–19: an analysis of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descriptive frames of Chinese and American leaders on epidemic spread.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Science and Education Research* 4(1), 70–83.
- Musuloff, A. 2012. The study of metaphor as part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Critical Discourse Studies* 9, 301–310.
- Neshkovska, S. and Z. Trajkova. 2020. Coronavirus–inspired metaphors in political discourse. *Thesis* 9(2), 99–132.
- Payne, L. L. 2006. Synthesizing crisis communication and reputation management. *Journal of Promotion Management* 12, 161–187.
- Pérez López, C. 2018. A comparative study of war and sport metaphors in political news headlines. *Grau d’Estudis d’Anglès i Francès*. Retrieved at https://ddd.uab.cat/pub/tfg/2018/196074/Perez_Carla_TFG.pdf on 5th June, 2020
- Philipp, W. and B. Marianna. 2020. Framing COVID–19: How we conceptualize and discuss the pandemic on twitter. *Plos One* 15(9), 1–24.
- Pinker, S. 2007. *The Stuff of Thought: Language as a Window into Human Nature*. Penguin.
- Prokhorova, O. N., I. V. Chekulai, O. I. Agafonova, E. V. Pupynina, O. V. Markelova and M. S. Matytsina. 2021. Political metaphor in Covid–19 media coverage. *Laplage Em Revista* 7, 15–21.

- Reisfield, G. and G. Wilson. 2004. Use of metaphor in the discourse on cancer. *Journal of Clinical Oncology* 22(19), 4024–4027.
- Semino, E. 2021. Not soldiers but fire-fighters—metaphors and covid-19. *Health Communication* 36(1), 50–58.
- Semino, E., Z. Demjén and J. Demmen. 2018. An integrated approach to metaphor and framing in cognition, discourse, and practice, with an application to metaphors for cancer. *Applied Linguistics* 39(5), 625–645.
- Sontag, S. 1978. *Illness as Metaphor*. New York, NY: Farrar, Straus & Giroux.
- Sontag, S. 1989. *AIDS and Its Metaphors*. New York, NY: Farrar, Straus and Giroux.

Examples in: English

Applicable Languages: English

Applicable Level: Tertiary